

섬유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소식들 <17>

가

1860년 11월, 미국 남부지방에서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Abraham Lincoln)”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것이 다음해인 61년부터 4년이나 계속되는 남북전쟁의 실마리가 되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남부에서는 면화재배가 발전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면업국인 영국의 “랭커셔(Lancashire : 영국의 대공업지대)”로 원료를 공급해 주고 있었다. 공업화가 발전하고 있던 북부에서는 보호무역을 주장하였는데, 남부는 자유무역을 주장하였고, 노예제도를 둘러싼 대립도 있어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사건이었다. 그 후로 “랭커셔”의 번창도 시들고, 면업의 중심은 극동으로 옮겨져, 일본을 경유하여 중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성자필멸(盛者必滅 : 한번성한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영고성쇠(榮枯盛衰 : 성하면 마침내 시들고, 변화하면 쇠한다)”라고는 하나, 150년이라는 역사를 느끼게 한다.

지금 면화의 가격이 너무 크게 올라, 전세계 방적업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있다. 원래는 오른 것은 떨어지는 것이 시장의 예사이다. 그러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앞에 놓고 방적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다.

가

남미에 있는 “칠레(Chile)” 광산에서의 낙반사고에서, 일본은 섬유제품을 지원하였다. 우주 항공연구개발 기구(宇宙航空研究開發機構 :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JAXA)와 대학, 어패럴·메이커가 공동 개발한 소취소재의 속옷이었다. 2009년에서 2010년에 유인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입었던 것이다. 의류를 비축하는 것도, 입욕(入浴)도 제한된 우주정거장 안에서 효과를 보였다. 2009년 말에 취재하였는데 JAXA측은 기사를 밝히는데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사업

의 분담을 시작하였을 때이므로, 이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그런데 2010년에는 “하야부사(바다의 매) 우주선”에 여성우주비행사의 활약 등으로 밝은 화제가 이어져, 이번의 “우주내의”도 멋있게 국제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JAXA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할 수 있겠다. 사업의 분담은 그 다음이다. 무엇을 갖고 보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 . ”

일본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고마쓰 세이렌(小松 精練)” 회장은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환경문제에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고 말하였다. 이 “고마쓰 세이렌”이 개발한 “그린 비즈(Green biz)”는 이 회사의 염색배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아도는 바이오 매스 케이크”를 극히 미세한 구멍이 많은 스폰지상 세라믹스로 만든 옥상 녹화 기반재(屋上 緑化 基盤材)이다.

이 기반재는 흡수성과 보수성이 뛰어나게 좋으며, 빗물만으로 식물을 키울 수가 있다.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조금씩 빌딩이나 공장의 외벽이나 옥상에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세계에 있는 모든 염공장이 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쿄나 오사카 등의 일부에서는 “그린 비즈”를 도입함으로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일본 전국에 더 많이 보급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하였다.♣